

# 성경의 복지, 오늘의 복지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

사도행전 2:44-47

정운돈 목사님

많은 분들이, 내가 복지 사역을 하니까, 복지 일이 나의 주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복지 사역을 하셨다. 나도 그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서 복지 현장을 보니까, 직원들도,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상자들도, 먹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항상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저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먹고 입고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가 운영했던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 대기업 회장이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학비를 다 대주셔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다. 전부 싸움만 하고 있었다. 학부 때 있었던 모든 신앙이 신학대학원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일본에 양로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에 최석 장로님이라는 의사가 있었다. 그분이 목포의 초대 민선시장이었다. 그분이 선교사님 밑에서 자란 분이였다. 선교사님이 이분을 세브란스 의대로 보낸 것이다. 그분이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너무 훌륭해서 민선 초대 시장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 주례를 했는데, 고아원 후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은 후 오금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분이 또 오금중앙교회 전도사였다. 이분이 소개해 준 분이 최진영 사모님이다. 나는 저분을 만나서 세 가지를 물었다. ‘목사 사모 될 마음이 있느냐. 지방인 목포에 와서 살 수 있느냐.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느냐.’ 다 ‘네’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했었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 장가가겠다고 대단한 분들도 만났었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yes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yes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 no를 못 하는 체질이었다. (웃음) 지금도 가끔 속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웃음) 진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또 한 번 속은 게 있다. 최정웅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떤 전도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사모가 전도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너무 좋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사모는 아직도 전도 안 한다. (웃음) 이렇게 해서 속아서 시작했다. 테이프 하나 늘어진 것을 들었는데, 내가 고아원에서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 장애인들 똥오줌을 닦아주고 사역하면서 늘 느꼈었던 문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에서 다 얻었다. ‘아, 내가 같길어 저것이구나’ 했다.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왔더니, 복음은 있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고, 시스템도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복지사역을 수십 년 해 왔다. 그래서 시스템을 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다. 복지 사역을 하는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안 된다.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부교역자들도 다 그렇다.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류 목사님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유일성의 분야가 이것이구나 해서 다시 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석사,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다.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50개가 넘는 교회에 복지 사역 컨설팅을 했고, 수백명의 복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웠다. 서울 와 보니 임마누엘서울교회가 복지 문제에 부딪혀 있었다. 아무도 이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이것을 돕게 되었다. 10년 동안 이것을 도왔더니, 임마누엘서울교회 장로님들이 복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장애인시설을 만들도록 도와주었고, 법인도 만들어주었다. RUTC의 GATE법인도 찾아서 만들어준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 유승환, 주철우 집사님이 일을 하고 있다. 내 소

원은, 나보다 열 배, 백 배 잘 하는 램네프가 나오는 것이다. 목회자의 역할이 그것이다. 바울도 내가 원래 복지를 열심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목회자가 끝까지 하면 안 된다. 중직자, 전문인, 램네프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그 내용을 모르면 지도를 할 수 없다. 천주교는 지금도 이것을 알고 신부, 수녀들이 가서 배운다. 종교인으로서 그 분야를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다 똑같은 특성도 없고 발전도 없다. 목사님들은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해시키는데만 한참이 걸린다. 우리 램네프, 중직자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수년 동안 들어야 할 내용을 한 시간 안에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시대의 복지는 영리, 비영리를 뛰어넘었다. 그냥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없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복지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수백 년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베껴서 금방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뤄 놓았다. 서구 선진국에서 우리를 보고 허탈해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 미국, 유럽의 사회복지 잘 된 부분을 다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따려면 4년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노인복지가 급하니까 3개월 만에 1급 따도록 만들어놓았다. 지금 빨리 따라. 앞으로 4년으로 바뀐다. 사회복지사도, 내가 국가고시 1급 1회인데, 그때는 참 어려웠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따 놓았다. 앞으로 우리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 1. 성경이 말하는 사회복지

(1) 구약시대에 보면, 삼년 째 십일조는 복지 기금으로 사용되었다(신 14:28-29).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것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도, 바탕이 성경이라서 성경을 실천하니까 복지 선진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도 뿌리를 이것으로 바꿔야 한다. 사서삼경이 아니라 성경으로 바꿔야 한다. 매 3년 끝에 내는 십일조는 복지기금이다. 모든 교회가 3년 째 된 십일조는 돈을 모아서 복지하자 하면 굉장한 응답이 올 것이다. 원래 새로운 복지를 하려고 하면 기본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사회복지법인을 오픈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했다. 이게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5억 원이 있으면 양로원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노인, 아동복지를 위한 기본 기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국가의 돈을 80% 끌고 올 수 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 20%를 하면, 국가가 80%를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3년 째 된 십일조를 모아서 새로운 복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 보자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2억, 3억만 있으면 아동복지를 위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다. 통장에 돈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허가받고 나라의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교회는 못 한다. 천주교, 불교는 하고 있다.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 테이크어센터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것은 절대적인 사역이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은 누구인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다. 이분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우리교회에서 캠프 훈련받으러 오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열 분을 저녁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이게 또한 복지 사역이다.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비난하더라.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학비는 못 낸다고. 그래서 이야기했다. “신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지 대상으로 생각해 주세요.” 멀리 보고 돕는 것이 바른 마인드다. 선교사님들도 이런 것을 잘 모른다. 만약 종교에서 사랑, 복지가 빠지면 무서운 집단이 된다. 복지에서 복음을 빼 버리면 너무나도 갈등 현상이 되어 버린다. 복지 대상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소변도 못 가리면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있을 때 나는 매일 나의 언약의 메시지로 불

잡은 것이 마태복음 10:40-42였다. 누구든지 이 소자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들을 섬기면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매일 붙잡았다. 그래야 갈등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 교사들이 형편 좋은 사람이 없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이 앵앵대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우리 램넛들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서 그 방향을 살려내어야 한다. 우리 윤은유 램넛가 우수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서 상을 받았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계속 포럼하면서 모델적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 top이 된다. 서밋이 된다. 그 친구는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를 하고, 중앙대에서 주말과정으로 석사 공부를 했다. 그렇게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와 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 서울에 복지기관이 만 개가 있다. 거기가 다 지교회화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자격증을 따라. 나는 램넛 한 명 한 명을 다 그 전문인으로, 원장으로 만드는 게 소원이다. 우리 램넛, 중직자들이 거기에 대표가 되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델 될 줄 믿는다.

(2)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구제의 축복이다(잠11:24-25).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실천해서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3) 초대교회는 복음 경제 공동체였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가 되었다(행2:44-47).

(4)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복지 사명을 보라. 목사가 목사에게 복지 사명을 알려준 것이다(딤후6:17-18).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했다. 여러분, 돈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은 계속 후원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을 받는다.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한다. 나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미국의 부자들이 후원을 많이 하는 것은, 첫째 기독교 배경이고, 둘째 후대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돈을 벌기만 하면 후대가 망한다. 그런데 어렵게 번 돈을 쪼개서 후원하면 후대가 자긍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돈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해야 한다. 그게 자신과 후대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해야 한다. 사회복지 후원을 두고 나는 계속 다니면서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족 교류 사역을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한다. 사회복지법인 램넛를 통해서 계속 지원했다. 이렇게 했더니 수십 군데 다락방 교회에서 복지센터가 열리게 되었다. 어제도 이천의 김명연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분이 청소년 쉼터를 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 교회를 도와주니까 계속 문의가 온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다. 예전 성경에는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했다. 그게 복지고,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비영리였다.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2천 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90%가 문을 닫았다. 유럽은 100년, 20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10년,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을 잘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되어야 한다. 공산당이 하는 것은 일당독재였고, 그 결과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로만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 격차가 많이 때문이다. 이 부분을 두고 시작한 것이 비스마르크다. 이 사람이 산재보험을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수급권자가 되면 혜택이 많다. 굶어죽을 수가 없다. 어려워져 보면 우리나라가 좋다.

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장애인이 되니까 가족들도 못하는 것을 나라에서 해준다.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이 와서 해 주는 것이다.

(5) 그래서 전도협회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두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 ① 참사랑교회 : 데이케어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②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
- ③ 지역이동센터 약 30개 소
- ④ 부산 임마누엘교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⑤ 예원교회 : 등촌4복지관 위탁운영
- ⑥ 청소년 쉼터 : 이천 등
- ⑦ 가족삼기운동 : 유니월드

총 90여 개 기관, 약 300여 명의 전문인이 있다. 천주교, 구세군, 불교보다 우리가 더 잘 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물론교를 보면 기업도 너무 잘 한다. 건강보조식품의 80%를 이 사람들이 한다. 커피도 안 마신다. 건강이라는 테마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안식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끌어간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top으로 서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10년 동안은 노예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요셉처럼 서밋이 된다.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실천만 해서도 안 된다. 둘 다 해야 전문가가 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방향만 잘 잡으면 알아서 고생시켜주고 공부시켜준다. 우리 램넛들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데이케어센터를 보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노인 유치원이다. 복음 때문이라면 꼭 해야 한다. 그냥 될 하는 것 같았는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장애인들, 노인들이 수요예배에 나온다.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송과구에서 우리처럼 제대로 신뢰를 받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날부터는 복음화, 전도화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 같은 분은, 장애인인데, 이제 예배시간에 칠판 판서한 것을 다 필기한다. 나만 만나면 “최신영! 남편!” 소리지른다. (웃음) 다 안다. (웃음) 이분들이 이렇게 치유받아가는 것이다. 내가 히로시마에 갔더니, 주간보호센터를 한 200명이 하고 있더라.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후대들이 걱정될 정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가 고민했는데, 방법이 있다. 통일되면 된다. 거기는 몸 약한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평균연령이 어리다. 이분들이 와서 우리 케어해주면 된다. 그 어려운 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이다. 통일되면 고령화도 해결되고, 성비도 여자가 많기 때문에 결혼도 해결된다. (웃음) 고민을 괜히 할 필요가 없더라.

## 2. 복음 복지의 필요성

(1) 사회복지의 개념(정의)이 무엇인가?

- 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정, 개인,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지로 넘어간다. 노인이 많아지니까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문제가 커지면 청소년 복지상담으로 넘어간다.
- ② 부족하다, 필요하다 하는 욕구들이 생긴다. 그것을 국가와 복지전문가, 자원봉사자, 교회, 후원자가 함께 채워주는 것이 복지다.
- ③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 ① 그제 공공부조다. 가난해지면 다 주는 것이다. 장애를 입으면 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다.
- ②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있다. 보건복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한국처럼 의료서비스가 잘 된 나라가 없다. 미국 가면 우리 같은 시스템이 없다. 문제는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안 이쁜데 괜히 입원하고 그

리지 마라.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 국민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복지는 안 된다. 필요한 것만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후진국은 내 욕심만 채운다. 그렇게 해서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다. 음료수 마시고 아무 데나 놔두는 것을 보라.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것부터 갱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아동, 장애인, 노인 등).

④ 이것들이 이제는 사회적 경제로 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①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②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 복지만 한다고 해서 사회, 개인,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4) 복음과 복지의 공통점이 있다.

①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다.

② 대상자가 사람이다. 물론 요즘은 강아지 복지도 있지만 (웃음)

③ 복지도 복음도, 인간을 최고로 존엄한 존재로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아무 역할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고 창조하시지 않았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최저생계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잘 산다. 남편들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기 쉽지 않은데, 복지시설 들어오면 영양사가 짜주는 밥을 아침저녁으로 먹을 수 있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다.

(5) 복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① 육신적, 심리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마약, 절음, 우상, 재앙, 불행감).

② 사회복지사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③ 생명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복지의 본질에서까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④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전도복지운동**

(1) 교회가 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① 예수님도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성이다. 교회에서 복지 사역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② 삶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③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C국에서 모든 선교사님이 쫓겨났는데, 총회장인 H선교사님은 안 쫓겨났다. 몇 년 전에 내가 권유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라고 했다. 그것을 이분이 실천했더니, 이번에 불려가서 공안의 조사를 받았는데, 어려운 사람 도운 것 때문에 증거를 보고 오히려 상을 받고 나왔다.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가족 결연사업을 해서 탄자니아, 케냐, 인도 등을 돕고 있다. 탄자니아에 무슬림들이 많은데, 방과후학교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왔다.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제 복음화의 통로가 된다.

④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전도하기 어렵다. 성도들도 학생도 청년도 바쁘다. 그런데 매일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있다. 복지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빠서 교회 못 오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기업을 장로님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회사 가서 예배드리도록 되어야 한다.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한다.

⑤ 직업, 사업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 이단, 타종교는 이것을 잘 하고 있다. 복지 현장을 타 종교와 이단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 한국 천주교는 이제 70, 80%를 해외 복지에 쏟는다고 한다. OECD안에서 1조 원을 해외 복지에 출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천주교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는 자리싸움, 교단싸움을 한다. 한국 교회는 절대 하나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 협회는 한 번 하면 쪽 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다락방 전도운동은 복지 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① 복지 현장은 다섯 가지 전도 기초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인 것이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 홈, 전문사역, 지교회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② 영접운동, 예배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다. 앞으로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매일 예배드릴 수 있다. 눈치 빠른 예원교회는 내년에 EMS를 부모 협동조합으로 다 바꾼다고 한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가장 먼저 실천해 버리는 것이 예원교회다. 본부보다 더 빠르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KOICA에 프로그램을 냈다. 부모 협동조합 품앗이로 하는 프로그램을 냈다. 그러면 KOICA예산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원교회 사모님이 또 바로 눈치채고 시작했다.

(3) 우리교회와 후대가 준비하고 도전해야 할 전도복지, 전도 NGO가 있다.

① 협동조합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 부모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면, 우리는 이 학교에서 성경을 정규 수업으로 넣어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영국의 학교들, 의료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기업연합체 같은 많은 사례가 있다.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기업연합체가 있는데, 이곳은 한 명도 잘리지 않는다. 협동조합 공동체 시스템이다. 이게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하면 직장 걱정, 노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중독, 가족, 청소년). 노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국제 NGO등을 응답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① 사회적 경제 제도를 비교해 보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다 같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다.

② 사회복지시스템의 종류를 보자.

- 1) 연령별로 할 수 있다. 요람(영유아)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이다.
- 2) 운영형태별로, 이용시설, 생활시설, 문화시설, 수련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기구가 있다. 이것은 지구 복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를 무시하지 말고, 실력 있는 분은 여기까지 가라.
- 3) 복지관,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이 있다. 학교는 어떤가. 복지기관인가, 교육기관인가. 학교 없는 나라에서는 교육이 복지 개념이 된다. 사회가 발전하면 법인이 달라진다. 제3세계는 NGO법인 안에서 학교, 병원을 다 할 수 있다. 성장하면 법인이 달라진다.

→ 이 모든 것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들어가면 모두 전도 시스템이 된다.

③ 기독교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

- 1) 복지의 사각지대를 담당해야 한다. 불법채류자 같은 현상이다.
- 2)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해야 한다. 송과구청에 우리가 무엇을 도우면 좋겠느냐 했더니, 장애인 단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더라. 너무 힘드니까 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시작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다. 데이케어도 TO가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제일 먼저 보내준 것이다. 그래서 단기보호보다 쉬운 주간보호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 하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고생이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탁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복지기관은 돈이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투자해 주어야 한다. 기금을 마련해서 시작하면 지역의 예산을 따올 수 있다. 천주교, 불교는 다 잘 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다. 교회는 다 부족하다. 큰 교회는 크게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게 부족하다. 예원교회는 몇 백 억 부족하다. (웃음) 그래서 복지는 우리가 약간 투자하면 큰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5억 만 투자하면 청소년수련관 몇 백 억 짜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 RUTC를 준비하는데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다라방 전체에 청소년복지사가 10명도 안 되는 것이다. 여주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는데 원장 될 사람이 없었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라방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경험만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라. 길은 얼마든지 있다.

#### 4. 미래 살리는 전도복지운동 준비

(1) 왜 사회복지 전문 현장에 도전해야 하는가?

- ① 많은 램넌트들의 진로와 미래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성도들과 중직자들의 미래의 삶과 사역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자립할 수 있는 복지 RUTC를 통하여 개척교회를 설립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광양임마누엘교회의 사례).
- ④ 선교현장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 무슬림 국가, 공산권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도 전도복지로 파고들 수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난민, 마약, 가정문제, 정신문제 등).

(2) 성도들과 램넌트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 ① 자격증과 전문성을 준비해야 한다.
  - 1) 학점은행으로 할 수 있다.
  - 2) 사이버대학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했다.
  - 3) 복지상담관련학과를 들어가는 것이다.
  - 4)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려면, 석·박사 공부까지 해야 한다. 앞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아예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현장 경험을 해야 한다.
- ③ 도전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 같은 것을 두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열어가갈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절대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능한 것이,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 램넌트들이 지금부터 팀을 짜라.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라. 성실하고 착하고 실력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협동조합이 너무 많다. 장애인 부모, 건설업, 미디어, 지역아동센터, 부모공동육아, 의료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축구팀도 만들 것이다.

(3) 제2 RUTC운동의 응답을 두고 그림을 그려 보자. 나는 한 건물을 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1층에 어린이집, 사회적 기업 카페, 생협 마트, 2층에 의료생협지과, 한의원, 치유센터, 피부미용 등, 3층에 지역 아동센터, 대안학교, 복음엘리트 학원, 다문화 교육센터, 음악·미술학원, 4층에 부부상담, 중독상담, 자살예방센터, 미술심리분석센터를, 5층에 데이케어 센터를, 6층에는 교회로, 7층에는 미션 홈, 선교관, 청소년쉼터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2 RUTC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센터에 우리 램넌트들이 다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전국에 세우는 것이 나의 기도제목이다.

- ① 소규모 RUTC는 개교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② 중규모 RUTC는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다. 빌딩을 구입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의료생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것을 채워 나가야 한다.
- ③ 그리고 대규모 RUTC는 덕령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워야 한다.

(4) 우리 교단의 장기적 복지 비전이 있다.

- ①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 ②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 ③ 전국 시군구마다 복지 RUTC를 설립하는 것이다.
  - ④ 복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 이 일에 우리 교회의 램넌트와 중직자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도 복지 사역을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제목과 도전 미션을 같이 나누겠다. 첫째, 전도 복지의 모델을 만드는 참사랑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둘째, 모델적인 교회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을 돕는 전도 NGO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셋째,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램넌트들이 다양한 복지 분야의 전문인으로, 리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넷째,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중 한 나라 이상을 마음에 품고, 전도와 복지 시스템으로 그 나라를 살리게 되도록 기도하자. 다섯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음적 복지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램넌트들이 이 사역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자. 237개 나라를 보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우리가 몰랐던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전 세계가 마음에 담기게 된다. 여러 분이 여기를 다 가 보시기 바란다. 우리가 이제 이 237개 나라에 전도복지, 전도 NGO로 도전해야 되겠다. 나의 선교국가를 찾아보고 도전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복지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 램넌트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사, 복음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분야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지역, 교단, 민족,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안의 후대들이 모든 분야에서 탐에 이르고 서밋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소통하며,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려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